

사회

# “수뢰 전·현 시의원 11명” 여수 경관비리 수사 확대

### 경찰, 오현섭 전 시장 구속

경찰이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여수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오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야간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시의원 11명에 달하고, 이 중에는 현직 도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오 전 시장 측근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경찰은 22일 전·현직 여수시 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오 전 시장의 측근 주모(67)씨에 대해 증거보전달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8월께 전·현직 의원 11명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야간조명사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여수시청 전 간부 김모(여·59·구속)씨에

게 1억원을 건네받아 “여수시장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경관조명사업’과 ‘시의원 로비 의혹’ 등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씨는 경찰이 야간경관사업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지난 4월 20일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다.

특히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준 전·현직 시의원이 10명이며, 이 중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주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의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의원이 ‘뒷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규모 사법처리 등 여수지역 정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은 또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1일 야간조명사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오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여수시청 전 국장인 김씨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모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주씨에게 건네져 여수시의회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1억원은 구속된 김씨가 보관하면서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홍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6월 18일 이후 60일간 도피하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엄마, 밥줘요” 처서를 하루 앞 둔 21일 여수시 화정면 하회도 마을 회관 지붕 아래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10마리가 입을 썩 벌린 채 어머니에게 먹이를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수시, 공직비리 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여수시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공공회령(유용)이나 금품수수의 경우 단 1번의 잘못도 해임 이상 중징계를 통해 조직에서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인허가, 지도단속, 계약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당 민원인에게 제출하는 청렴각서제 시행과 함께 6급 이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전 화엄사 주지 평전 스님 음독

22일 오전 6시50분께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수도암에서 이 암자 주지 평전(68) 스님이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상좌 정우(59) 스님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평전 스님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50분께 숨졌다.

평전 스님은 A4용지 3장의 유서에서 “후사를 잘 부탁한다. 다비장과 재산관계는 화엄사와 의논해서 하라”는 등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전 스님은 천은사와 화엄사 주지(1992~1994년)를 역임한 조계종의 원로스님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지나친 母情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친구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것에 화가 난 어머니가 찾아가 ‘보복 폭행’을 했다.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M아파트 인근 K체육관에 A씨가 들이닥쳤다. K체육관원생 O(11)군의 어머니였다.

A씨는 체육관으로 들어가 “J군이 누구냐?”라며 소리를 쳤다. 이어 J군이 손을 들자 A씨는 손으로 J군의 얼굴을 때린 뒤 머리를 잡아당겼다. 당시 체육관에는 관장 등이 있었다. K관장이 중재에 들어갔지만, A씨의

### “아들이 친구에게 맞았다” 체육관 쫓아가 보복폭행

홍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바닥에 떨어진 뒤 아들에게 “똑같이 때려라”고 말했으나 망설이자 손톱으로 얼굴 등을 할퀴었고, J군은 이날 얼굴·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잇몸·치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들이 J군과 싸움을 하던 중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K체육관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은 21일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100) 김중두



### 한상렬 목사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얼굴없는 천사’ 光銀에 500만원 기부

○광주은행의 한 영업점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천사가 거액의 성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잔잔한 감동.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 남구의 한 지점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은행 창구에 놓인 ‘자투리 동전 모금함’에 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집어넣었다는 것.

○이를 본 은행 여직원인 “고객님, 거기는 동전 모금함인데요”라고 말했으나 기부자는 아무런 대꾸없이 황급히 사라졌다는 것. ○은행 측은 고객이 실수로 투입해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일까지 찾으러 오지 않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0만원을 비롯, 광주 남구 관내 7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모두 500만원을 기탁.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화순·부산·양평·속초·서울...숨가쁜 도피행각

#### 오현섭 60일간 행적...카드 사용 앓고 통화는 공중전화로

‘여수시 경관조명사업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오현섭(60) 전 여수시장과 측근인 주모(67)씨의 도피 행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8일 자수 전까지 60일간 8개 시·군을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중전화와 만을 사용했으며, 신용카드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이 잠적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6월 18일, 그는 이날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서 화순의 한 별장으로 몸을 피했다. 수중에는 현금 500만원이 준비돼 있었다.

16일간 이 별장에서 머문 그는 지난달 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화순의 은신처를 확보해준 지인 A씨가 체포된 시점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의 진술 거부로 시간을 번 그는 부산지역 여관을 전전공하던 중 이번에는 또다른 지인 B씨가 구속되자 경기도 양평으로 은신처를 옮긴 뒤 곧바로 다음날 강원도 속초로 이동했다.

그는 또다시 경찰의 추적을 받아 강릉 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강릉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CC-TV에는 그가 승차권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후 그는 자수할 때까지 40일

간 서울에 머물렀다. 60일간 도피생활을 하는 사이 그를 도와준 친구·지인 등 5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모두 입건됐다.

측근인 주씨의 도피 행각도 허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주씨는 4월 20일 경찰의 수사 분위기를 눈치채고 중국으로 달아난 뒤 넠 달간이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당시 부인과 함께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한 그는 도피자금으로 중국의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에 임대 주택을 마련한 뒤 도피행각을 벌였다. 결국 그는 오 전 여수시장이 최근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인 지난 2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와인스쿨 에콜 뒤 땀 입문반 개강

와인스쿨 에콜 뒤 땀 입문반 개강

와인스쿨 에콜 뒤 땀 입문반 개강

## 서울머스 캐일은뱅

서울머스 캐일은뱅

서울머스 캐일은뱅

## 슬로시리 증도

슬로시리 증도

슬로시리 증도

## 제주김밥 특가 (노숙선 행사) 오백 남파 - 9월7일, 9월8일

제주김밥 특가 (노숙선 행사) 오백 남파 - 9월7일, 9월8일

제주김밥 특가 (노숙선 행사) 오백 남파 - 9월7일, 9월8일